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2
의룡 스님(前 직지사 강주) / 육조단경(9월 23일)



옳다 그르다 말고 본래면목 보세요

불교의 선택을 본다면 저 인도의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정법 인장을 이어받은 시조(始祖)고, 그로부터 28대에 해당하는 보리달마(菩提達磨)대사가 중국에 와서 법을 펴니 29대가 혜가(慧可) 스님, 30대 승전(僧璨) 스님, 31대 도신(道信) 스님, 32대가 홍인(弘忍) 스님, 33대가 바로 중국 선불교의 혜능 스님(慧能, 638-718)입니다. 그 분이 바로 육조(六祖)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육조 스님의 법문을 모은 것을 '단경(壇經)'이라고 합니다. 이 <육조단경>이 오늘 법문의 주제입니다.

우선 <육조단경>의 제1행유품(行由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대사가 보림에 이르자 소주에 사는 위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와서 스승에게 대법사의 강당에서 대중을 위하여 인연을 열어 설법하기를 청하므로 스승이 자리에 오르니 자사와 관료 30여명과 유교 선비 30여명과 비구와 비구니와 도를 닦는 이와 속인 등 천여 명이 다 같이 예를 취하고 법문 들기를 원하므로 스승이 대중에게 말씀하기를 "선지식이! 보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만 쓰면 바로 마침내 부처를 이루리라."

이것은 혜능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보리는 무상의 도리입니다. 자성(自性)은 본래 더러움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것입니다. 옳음도 그름도, 선도 악도 아닌 것을 일컫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사용할 줄 알면 마침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 무상의 참된 지혜입니다.

선지식이! 나 혜능이 법을 얻은 내력을 들어보라. 나의 선전은 본관이 범양(范陽)인데 좌전되어 영남(嶺南)으로 내려가 신주(新州)의 백성이 되었다. 이 몸이 불행해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외롭게 사는데 뒤에 남해로 와서

가난한 살림에 쪼들려 고생을 하며 시집에서 나무를 팔았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으로 갔다 달라 하므로 혜능이 손님에게 갖다드리고 돈을 받아 나오다가 어떤 손님이 경 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경을 잠깐 들으니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라(應無所住而生其心)' 하므로 마음이 열리고 깨쳐서 '손님께서는 어떤 경을 외우고 계십니까' 물으니 손님이 '금강경'입니다' 하므로 다시 물되 '어느 곳에서 오셨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니 손님이 말하길 '나는 황매현 동선사(東禪寺)에서 왔습니다. 그 절에는 오대조인 홍인 대사가 계셔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천여 명이나 됩니다. 저도 그곳에서 예배하고 이 경을 받았습니니다. 대사께서는 항상 스님들과 속인들에게 말하기를 '다만 <금강경>만 받아 지니면 스스로 경성하여 바로 성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옛적부터 인연이 있어서 그 손님이 은 열 냇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충당해 놓고 황매산에 가서 오조에게 예배하라' 하시므로 혜능이 어머니를 편안히 모셔놓고 30여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황매에 이르렀습니다.

오조에게 예배하니 홍인 대사가 들어 가 로되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슨 물건을 구하고자 하는가" 하시니 답하기를 "저는 영남의 신주에 있는 백성인데 멀리 와서 예배드리려는 것은 오직 부처가 되길 바랄 뿐 물건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했습니다.

조사가 말씀하시길 "영남 사람이라면 곧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시므로 말씀드리길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는 화상과 더불어 같지 않겠지 만 불성(佛性)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오조가 다시 말씀하시러다 대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대중을 따라가 일



"부처님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는 의룡 스님은 "육조단경"을 통해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자"고 당부했다.

이나 하라"고 하시므로 "혜능이 화상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자기의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성을 떠나지 아니 함이 이것이 곧 복전(福田)이라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라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던데 스님이 말씀하시길 "오랑캐의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는 가서 방앗간이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혜능이 물리나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나무를 쪼개고 방아를 짚게 해서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조 스님이 혜능을 보고 말씀하시길 "너의 소견이 가히 쓸 만하구나.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려워 너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했다. 너는 그것을 알았는가?" 하시므로 "저 역시 스승의 뜻을 알았으나 감히 당 앞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오조 스님은 하루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하노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고 죽는 일이 큰데 너희들은 날마다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구하지 않는구나. 자성(自性)이 만일 미혹하다면 복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가서 각자 스스로 지혜를 살펴보고 자기의 본심인 반야(般若)의 성품을 취하여 각자 계승을 하나씩 지어 나에게 바쳐라. 만일 큰 뜻을 깨달았으면

가사와 법을 전하여 제 육대조로 삼으리니 속히 돌아가서 지체하지 말거라. 사랑(思量)으로 헤아린다면 맞지 않을 것이니라. 성품을 보는 사람들은 말 아래에 모를지기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자는 칼을 부리는 전장터에 나가서도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중들은 분부를 받고 물리나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를지기를 밝혀서 뜻을 써서 계승을 지어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좌가 교수사(教授師)이니 반드시 그분이 그것을 얻을 것인데 우리가 계승을 짓는 것은 마음만 헛되이 할 뿐이다" 했습니다.

신수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계승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저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니 내가 모름지기 계승을 지어 화상에 보이리라. 만일 계승을 바치지 아니하면

화상이 어찌 내 마음 속의 견해가 깊은지 얕은지 알겠는가. 내가 계승을 바치는 뜻은 법을 구하는 것이니 좋은 것이려니와, 조사의 자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은 악이리라. 도리어 법부의 마음과 같아서 성인의 자리를 빼앗음과 어찌 다르겠는가. 만일 계승을 바치지 아니하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크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로구나."

오조의 당 앞에는 복도가 세 칸이 있었는데 공봉(供奉)인 노진(盧珍)을 청해 <능가경>의 번상도와 오조의 혈맥도(血脈圖)를 그려 전하여 내려가며 공양하게 하도록 하는 중이었습니다. 신수가 계승을 바치려 여 러 번 당 앞에 갔는데 마음이 황홀하고 온 몸에 땀이 흘러 바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4일 동안 열세 번이나 계승을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신수가 생각하기를 '복도 아래에 글을

붙여서 스님이 보시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만일 좋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나아가 예배하며 내가 지었다 말씀드리고, 마땅치 못하다 이르면 헛되이 산중에 들어와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람의 예배만 받은 것이니 다시 무슨 도를 닦겠는가' 했습니다. 이날 밤 삼경(三更)에 다른 사람들이 아리 못하도록 직접 등을 들고 남쪽 복도의 벽 사이에 계승을 썼습니다. 계승에 이르길

"몸은 곧 보리의 병풍이요(身是菩提樹) 마음은 밝은 거울을 거는 걸이와 같구나(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時時勤拂拭) 티끌과 먼지가 일어나지 말도록(勿使惹塵埃)"

자, 여기까지 단경을 중심으로 살펴 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대의(大義)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회에 오기 위해서 50년 만에 <육조단경> 전체를 다시 봤습니다. 봉선사 스님들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킨 것입니다. <육조단경>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으니 참 큰 뜻이구나 세상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是非)는 이 대목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신수대사의 계승을 "몸은 곧 보리의 병풍이요"라고 새겼습니다. 보통 "보리의 나무요"라고 해석하지, 병풍이라고 새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이 배울 때는 "나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제 해석이 절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한 번 새겨봤다는 것입니다.

몸은 보리를 장엄하는 병풍의 역할입니다. 보리가 주인공이지, 몸은 보리의 병풍 곧 장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밝은 거울의 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하여금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신수대사의 법문입니다. 신수대사는 당시 몇 백 명을 가르쳤던 강사 스님으로, 자신의 수행 견처(見處)를 이 글귀에 담아 오조 스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 계승을 들은 혜능 스님이 말로써 계승을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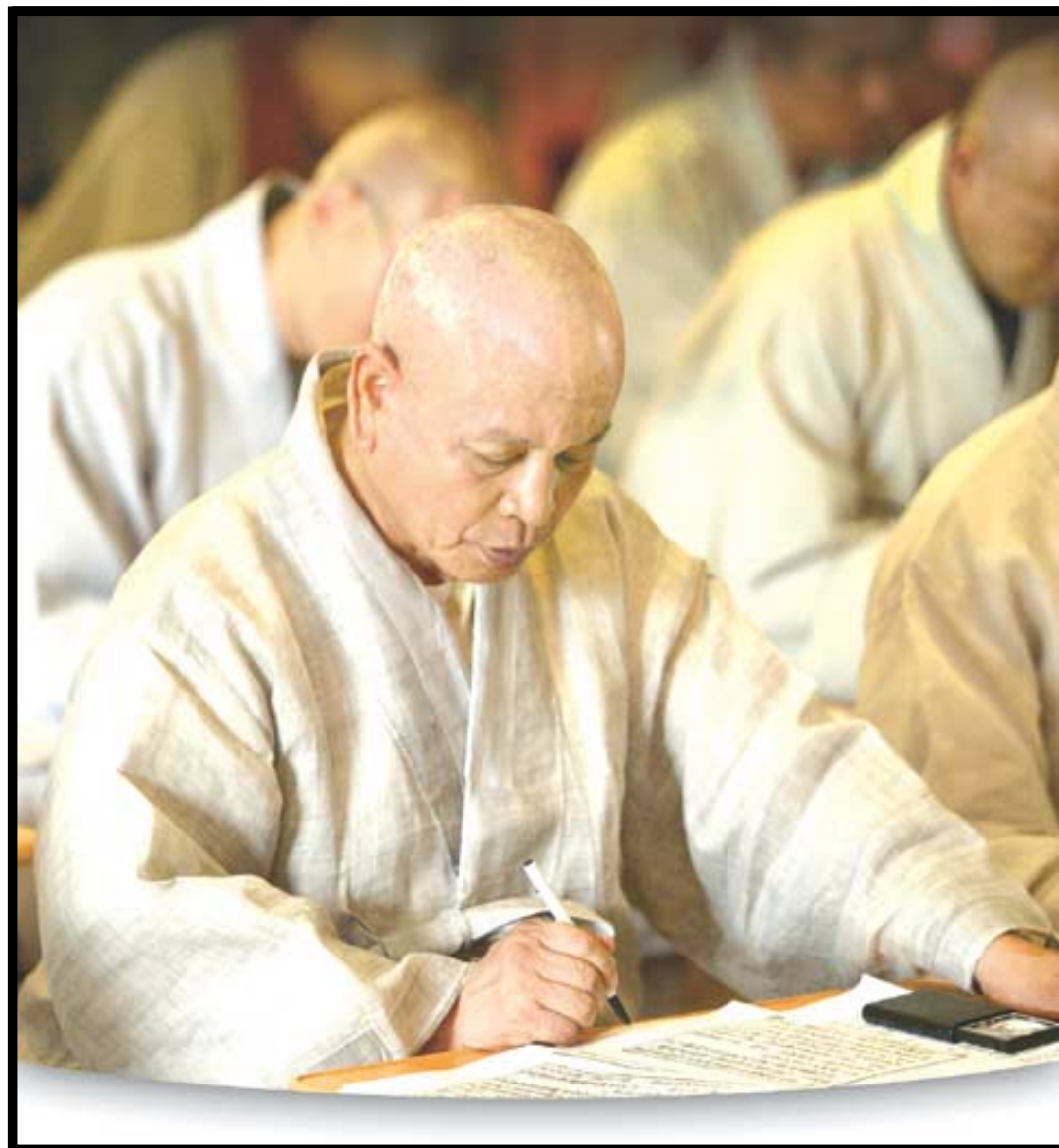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是菩提非木)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니요(明鏡亦非臺) 본래 한 물건도 없는체(本無一物)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일겠는가(何處惹塵埃)"

바로 이때부터 불교에 시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삼차전생을 할 때는 이런 시비가 없었어요. 바로 신수와 혜능 행자와의 계승에서부터 시비가 일게 된 것입니다. 몇백 년 후에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 대목이 참 슬퍼요. 신수와 혜능 두 사람을 모두 인가하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법(佛法)

청정보리심엔 언어·문자도 붙지않아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부처자리'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봉선사 설법전 | 주최 봉선사·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31) 527-1951~3

2006. 9. 16 ~ 11. 25

經典

수행을 통한 깨달음



지안 스님 금강경, 의룡 스님 육조단경, 혜남 스님 화엄경, 운각 스님 아함경, 지안 스님 열반경, 각성 스님 해심밀경, 백운 스님 법화경, 우룡 스님 정토삼부경, 통광 스님 원각경, 월은 스님 능엄경

봉선사 강설대법회
11월 25일 보살계수법회
(031) 527-1951~3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sunsa.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